불자의 최소 조건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예전에 어느 불교 전법사가 주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불법을 바로 아는 이는 드물고, 불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는 더욱 드물다'라는 것이었다. 평범한 글이지만 비교적 강한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됐다.

오늘날 종종 발표되는 통계를 봐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불교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으니 첫째 구호는 의미 있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 '드물다'라는 말도 그렇지만 불법이라는 말에 어떻든 복잡한 교리체계 등을 떠올리게 돼 두 번째 표어도 수긍할 수 있다. 세 번째 구호, 불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는 더욱 드물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스스로 불교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한 캐치프레이즈라면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불교가 좋아도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는 이가 없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교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과연 불교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불교를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옳은 진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앞의 캐치프레이즈가 왜 의미 있게 들릴까?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불교니, 불법이니, 불도니 하는 용어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용어의 함정, 언어의 함정에 쉽게 빠진다. 말은 의미의 전달을 위해 유사하게 모습을 바꾸는 속성이 있다.

불교·불법·불도는 다른 표현에 불과
다르지 않음 알면 실천 저절로 행해져
삼귀의·보시 실천, 청정으로 나아가야

불교나 불법, 불도 등의 표현에는 그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보적 이해이다. 불교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세상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 그 가르침의 다양한 법(교설이나 존재)이나 법칙을 칭하기 위해 불법이라 하며, 세상 대중에게 가르쳐 그 교설을 따라가니 불도라 칭해지는 것이다.

결국 불교, 불법, 불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것을 좋아하고 알며 실천하는 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실천은 저절로 행해지게 돼 있다. 불교를 좋아하고 알고 하는 행하는 순간 불자[bauddha]가 되며, 그것은 수계라는 의식으로 확정된다.

그래서 불교를 행하는 것은, 즉 불교·불법·불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고통의 현재에서 벗어나 피난처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라는 삼귀의의 서원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돌아가 의지할 곳은 붓다·담마·승가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붓다를 칭명하고 받들겠다/ 붓다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겠다/ 청정한 승가를 공경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해석해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의 제자, 바웃다의 최소 조건이다. 여기에 보시의 베풂으로 인색함을 덜고 청정으로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도파민 중독사회와 선명상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세포에 쾌락, 즐거움 등의 신호를 전달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소위 '문명사회'라고 불리는 마당에 사는 현대인들은 각종 고통과 불편함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무기력과 불안을 낳았고 결국 도파민 중독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고 있다.

주변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도파민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SNS와 스마트폰에 매몰된 디지털 중독, 상품 구매에 빠진 사람, 특정 연예인에 매달린 열광적 팬, 운동 중독,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편향된 한 생각에 집착한 '구분심의 중독' 등이다. 이러한 도파민의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 신경 심리학, 임상 심리학 등 정신의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각종 치유 방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명상은 서구에서 계발되고 확산하고 있다. 프로이트 심리이론이 가진 한계성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심리 임상 치료에 활발히 적용하고 있고 '명상의 과학화'를 주창하고 있다. 이를 어쩌라.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지만 뭔가 서운한 생각도 들곤 한다. 특허를 도용당한 것 같이.

행복, 쾌락·고통 균형 항상성서
도파민 과잉, 중도 항상성 파괴
치유 위한 선명상 과학화 중요

근래 한국불교계에 '선명상'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참으로 반갑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조계종 전통 수행인 간화선이란 용어는 수행자 중심의 산중 불교의 느낌을 주고 깨달음 위주의 명상으로 인식됐다. 이제 선명상은 하산(下山)하여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명상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리라.

전통적인 한국불교는 깨달음이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인 가치 체계를 유지한 느낌이다. 그러나 선명상은 깨달음과 자비가 일란성 쌍둥이로 동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광장 속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리라.

뇌과학은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부위에서 나온다고 한다. 쾌락과 고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한다. 쾌락과 고통은 모두 삶의 기본적인 질료이다.

여기서 중도(中道)를 생각하게 된다. 도파민의 과잉은 중도의 항상성이 파괴된 것이다. 도파민 중독 치유는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실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는 선명상 과학화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새로운 연기적 틀에서 등장한 선명상의 역할과 과제는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이다. 선명상이 도파민의 파고 속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대자유인의 기개를 심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선명상은 전법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선명상이 지혜와 자비의 정원을 가꾸는 실천윤리로 뿌리내리기를 서원한다.

社 說

불교문화 외교의 새 지평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불교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선명히 각인시킨 뜻깊은 자리였다.

불교계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법회를 시작으로 불국사에서 열린 공식 외교행사와 사찰음식 만찬,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며 한국 불교문화를 '평화의 언어'로 세계에 전했다. 경제와 안보 중심의 국제회의가 종교와 문화를 통해 '마음의 외교'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불국사에서 열린 배우자 행사는 불교문화 외교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선명상 수행으로 세계 평화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APEC CEO 서밋 특별만찬에서 선보인 사찰음식도 한국불교의 철학적 깊이를 세계와 나누는 훌륭한 문화 사절이 됐다. 또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으로 '마음의 평화'에서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불교는 '문화외교의 조연'이 아니라 '평화외교의 주체'로 우뚝 섰다. 불교계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행사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불교문화의 세계화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불교정신을 전하는 일이다. 사찰음식·선명상·간화선처럼 한국불교의 생활문화와 수행문화를 체계적으로 세계화하고, 국제협력 속에서 '평화와 상생의 불교외교' 모델을 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범어사 대승적 결단 빛났다

한국의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도심형 국립공원의 주인공은 부산 금정산이다.

금정산은 부산의 주산(主山)으로서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금정총림 범어사와 금정산성은 금정산의 정체성이자 핵심자원으로 손꼽힌다.

부산시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오랜 공을 들여왔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 사유지와 사찰 토지 문제, 수행 환경 보전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이에 범어사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부산시·금정구 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지정 이후 운영 국면까지 함께 책임지는 협력 당사자'로 참여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범어사의 협력은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6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 보전 가치에 중심을 둔 자연유산임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결정적 기여를 범어사가 한 것이다. 이는 사찰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시대 과제에 대한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범어사를 품은 금정산 국립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